

창간호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4 Winter | VOL. 1

기대, 그리고 설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두근거리는 설렘은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기대, 그리고 설렘

학창시절 읽었던 이병주 선생님의
‘고인(古人)과의 대화(對話)’가 생각납니다.
완당(阮堂)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한 폭에서
고인(古人)의 사상과 삶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리고 경륜.
그 분의 지혜와 경륜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도 세상과의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과 결과를 생각하며 살지만,
누구나 황혼기에 접어들어
여유로운 사유(思惟)의 시간이
부족했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시작하는 동행(同行)이
부족함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바쁜 걸음 속에서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세상과의 동행,
그리고 세상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4 Winter | VOL. 1

- 04 Vision_1 발간사_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05 Vision_2 축사_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06 Vision_3 VISION 2015, 소통의 창을 열다
- 08 Zoom in Dongguk DUMC NEWS
- 12 Zoom in Dongguk DUMC 인사동정
- 13 Zoom in Dongguk 나눔과 함께하는 세상
- 14 Good Doctor 의사는 환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나무
- 17 Introduc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양·한방 통합 뇌손상집중치료센터
- 18 Column_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눈(眼)
- 20 Column_2 배가 자주 아픈 청소년
- 22 Essay 달과 같은 가섭(迦葉)의 얼굴 표정
- 24 Travel 겨울왕국 찾아 떠나는 여행
- 26 Taste 피부를 젊게 하는 늙은 호박
- 28 동국보감 공진단(拱辰丹) 이야기
- 30 Smart Ti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31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 35 진료일정안내

Name Story

의료원보 제호 _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길은 혼자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길동무와 함께 하여야 더 행복합니다.
휘청일 때 손 내밀어주고 힘들면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 기울여주며
나란히 걷는 이가 있다면, 한걸음 내딛는 발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행합니다.

Cover Story

인생은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거라 서툴 수 밖에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인생이기에 꿈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는 아닌 까닭에, 심장이 뛰는 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건져올릴 수 있습니다.

의료원보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그릇입니다.
의료원 모든 식구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진호 합장



1988년 의료원을 설립하고서, 드디어 의료원보를 창간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즉시현금 갱무시절(卽時現金 更無時節)이라고 하듯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부족하고 미숙하
지만, 우리의 역량을 모두 담아 여러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칩니다.

의료원보는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그릇입니다.
여기에는 의료원 모든 식구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자 합니다.
한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포함한 대학식구들,
경주병원, 일산병원, 분당병원의 교수들과 직원들
또한 의료원에서 수고하는 동국가족들의 활동과 마음을 모두 담고자 합니다.

이러한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맑고 순수한 얼굴을 깨끗이 가다듬어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동국대학교 법인가족들에게 인사할 것이며, 나아가 종단과 불교
계 모든 어르신들과 불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희의 부단한 노력과 활동을 살펴보시고, 부족한 모습에는 질타와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쁜 몸짓에는 작은 박수라도 부탁드립니다.

늘 아낌없는 모든 분들의 성원 속에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의료원 식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협력
하여 여러분들의 지원과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빠리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멀리 가고자 한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부처님의 나라 ‘동국(東國)’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가피와 그리고 부처님의 현신(現身)이신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소망을 의료원보에 담아 소식 전하겠사오니, 늘 기쁜 마음으로 이 의료원보
‘동행(同行)’을 받아 보시고, 또한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포교의 중심도량 종립
동국대학교의료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동행(同行)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



동국대학교 의료원보 동행(同行)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료포교의
중심도량 종립 동국대학교의료원의 화합과 즐거움을 이루고, 고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위로하는 향기로운 동행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화합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교직
원 여러분과 고객들이 소식지의 이름처럼 동행(同行)의 지혜로움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정성을 다하며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달려오신 교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호 뜻 그대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동행’이 되어, 지금 딛고 선
이 자리를 바로 보고 새롭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의료
문화의 참된 소식뿐 아니라 구성원들과 고객들의 삶이 함께하고 교직원과
고객, 동문과의 화합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길 항상 바라겠습니다.

유마거사께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해
중생이 행복하면 우리 역시 행복해 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고, 이러한 공덕이
다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삶의 큰 가르침입니다. 나눔과 봉사는 결국
자신을 위한 베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깊음 속에서 여타의 의료시설과 달리 인성을 중시하고 온정이 넘치
는 의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종단은
물론 많은 불자님들은 종립 동국대학교의료원의 성장과 도약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자비와 포용의 가르침에 따라 교직원 모두가 고통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약왕보살의 화현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처럼 건강과 행복 안에서
신행 정진하시길 축원합니다. 동행(同行)의 창간을 거듭 축하하며, 동국대학교
의료원의 무궁한 발전과 모두에게 약사여래의 혜명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VISION 2015

疏通의 창을 열다

내일을 움직이는 오늘,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과 도약

동국대학교 의학계열은 1978년 한의예과, 1985년 의예과를 신설하였으며, 의료원은 당시 총장 지관스님을 초대 의료원장으로 모시고 1991년 경주병원, 1996년 분당한방병원, 2005년 일산병원 및 일산한방병원을 개원하여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의 실천을 서원하고 그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 제14대 이진호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과, 경주권역 및 일산권역에 5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원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2015 경영목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창조하고 고객과 자비중심의 선진의료원'으로 대외지표 강화를 통한 전국적인 인지도 획득, 양·한방이 조화로운 통합의료기관 구축, 최고의 의료전문가 육성 및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자율경영체계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오늘도 전교직원은 합심된 마음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미래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교직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의료원의 경영방침은 '공정경영'입니다. 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린 공평한 기회,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평가, 왜곡되지 않는 공정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전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자기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원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고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료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진료 특성화 영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의료인력 및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의 근간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권역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반영한 의료원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일산에 개교하는 바이오메디 캠퍼스와의 연계를 통한 연구 성과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전 교직원과 일치단결해 '상생'을 통한 가치 증진, '소통'을 통한 역량 결집으로 대학과 병원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의료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임상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우수의료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보건향상과
자비정신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9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9월 26일 개원 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김민호 행정처장의 경과보고, 내빈 소개, 장기근속자표창, 자랑스러운 동국 의학인상 시상, 동국학술연구 대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미래는 준비하고 도전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또 다른 성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전하고, “단결, 화합, 배려정신을 동료들과 함께 실천한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찬란한 우리 자신과 동국대학교병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2014년 하반기 부서장 워크숍 개최

2014년 하반기 부서장 워크숍이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이란 주제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강화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진호 의료원장, 채석래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김민호 행정처장, 박석원 전략경영실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각 부서장 등 약 85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년과 미래 병원 발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동국대학교병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병원 브랜드 가치 향상 전략 (향후 10년을 향한 전략), 공간과 서비스의 효율적 구성, 인적자원 역량

강화 전략, 신 의료영역 발굴, 한방 성장동력의 소주제로 분임토의를 사전에 진행하고, 조별 발표를 통해 부서장들과 공유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1주기 한방병원 인증조사’ 시행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1주기 한방병원 인증조사’를 1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시행했다. 인증 조사위원들은 7개의 System Tracer 및 리더십 인터뷰를 비롯한 병동, 외래, 약제실 등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는 환자 추적조사를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평가했다. 조사위원장은 총평에서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진료전달체계, 환자진료, 약물관리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성공적인 인증 획득을 위해 1월 인증 TFT를 구성하고 규정 제정과 3차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고, 이날 모든 교직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무사히 인증을 마쳤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Leisure2014 관광박람회’ 참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Leisure2014 관광박람회’에 참가했다. 본원은 고양시의료관광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고양시 의료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양·한 방협진서비스 등 타 병원에서 볼 수 없는 특화된 서비스를 소개하여 참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신규 시장 개척에 더욱 더 힘을 쏟아 한국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자비를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승가대학 등 의료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의료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연우회 회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중앙승가대학교’와 남양주에 위치한 ‘봉선사’(주지 정수스님)를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거의 매월 참석하고 있다는 연우회 회원은 “봉사를 하러갔다가 더 많이 치유되고 더 많이 행복해져서 돌아온다”라고 말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은 많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속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실천법이다.



2014년 1004 Day기념 간호부 나눔 봉사 활동

간호부는 10월 2일, ‘1004 Day(천사데이)’를 맞아 병원 1층 로비에서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 100세를 위한 혈압관리’라는 주제로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의 행사는 병동환자 및 보호자, 외래고객들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관련한 상담 및 식이요법 상담, 자전거, 줄넘기, 훌라후프 등의 운동요법 체험, 무료 혈압측정과 혈당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풍선아트, 다트게임, 한방차 제공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천사들과 환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1004 Day(천사데이) 활동은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국대학교병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0월 초에 실시하고 있다.



터키 보사부 국장일행과 중국 산둥성 보건실무단일행,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방문

10월 14일 터키 보사부 국장일행과 9월 25일 산둥성 보건계획생육위원회 부처장 일행이 한

방의료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터키에서 온 보사부 국장은 민간요법으로 전해오는 뜸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 중국에서 온 보건계획생육위원회 부처장은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제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산한방병원은 한의학의 세계 진출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의료원 불교의학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 불교의학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를 10월 24일 명성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불교의학연구소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정인원 교수는 “불교의학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의·생명과 밀접한 과학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법활동에 치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간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교 교리와 수행이 현대 질병관리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연구하기 위해 불교의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개원 23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이진호 의료원장, 이동석 병원장,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2일 23주년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이동석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해 준 교직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직원 모두 고객 속에 병원의 미래가 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진정한 고객 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진호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가 경주병원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항상 고객을 만족시키는 병원이 되길 바라며, 교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아기 구순열 수술 무료 시행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10월 15일 캄보디아에서 온 6개월된 남자 아이의 구순열(일명 언청이)수술을 무료로 시행했다. 이번 수술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의사회에서 의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무료 의료봉사를 갔다가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의료낙후지역인 캄보디아에서 수술을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본원에 진료를 의뢰하게 되었다. 수술비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지원하였으며, 성형외과 정규용 교수의 성공적인 수술

로 아이는 치료 및 경과를 지켜본 후 고국으로 떠났다. 이동석 병원장은 “이번 캄보디아 아기의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동국대학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해외의료관광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과 홍정길 교수 초빙으로 통증클리닉 개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9월 1일부터 마취통증의학과 통증클리닉을 개설하여 진료를 시작했다. 통증클리닉 개설로 초빙된 홍정길 교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중앙수술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87년 일본대판의대 통증 클리닉을 연수하고 돌아와 경북대학교병원 통증치료실을 개설하여 키워 온 장본인이다. 아울러 대한통증학회 대구경북지회 초대지회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 대한통증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마취통증분야의 권위자로서 끊임없이 진료 및 연구에 힘쓰고 있다. 통증클리닉에서는 수술 후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요통 및 하지통, 근근막증후군, 두통, 삼차신경통, 안면통, 암성 통증, 말초 순환장애 등 통증이 동반된 질환을 치료한다.

기북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건강(암)검진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9월 25일 포항시 기북면에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기북면 건강위원회(위원장:이지원)와 건강(암)검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검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독려 및 홍보, 검진을 위한 사전 예약 등을 실시하여 기북면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체결되었다. 본원에서는 주민들의 수검율 제고 및 검진의 편의 제공을 위해 통원 차량을 제공키로 하였으며,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016년까지 건강취약지역인 기북면을 선정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해 활기차고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만성 근골격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물리치료실에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가 도입되었다.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와의 만성 근골격 질환 환자에게 사용되며, 공기압축기 충격파(Shock Wave)를 발생시켜 통증부위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료장비이다.

문의 : 정 형 외 과 » 054. 770. 8221
재활의학과 » 054. 770. 8293

제6회 경상북도 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본선 개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8월 30일 경상북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경주병원 응급의학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상북도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

하여 도내 22개 고등학교 26개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 최대해 교수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안전한 경북이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상식은 10월 28일 병원장실에서 있었으며,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팀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일본 오사카 여행 관계자 경북 의료관광 팸투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국제힐링센터에서 일본 오사카 여행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팸투어를 했다. 오사카 여행관계자 6명은 국제힐링센터를 방문하여 견학하고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검사와 체지방 분석검사 등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 호평을 받았다. 여행 관계자들은 “국제힐링센터의 첨단 의료 시설과 최상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경상북도 의료관광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개원 18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10월 7일 개원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교직원 등이 참여한 기념식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10년, 20년 장기근속상을 수여했다. 김장현 병원장은 식사에서 “교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의료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며 최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한양방 공동 주치의제, 입원환자에 대한 약선밥 제공, 각종 클리닉의 활성화를 통해 원스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원 18주년 교직원 워크샵 개최

양평에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개원 18주년 교직원 워크샵’이 1, 2부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모범직원 표창(표창장과 부상으로 선진의료로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기회)과, 환자와의 원활한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법에 대하여 에듀컴 이동근 강사의 CS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레크레이션을 통한 화합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발점으로, 직원 간에 더욱 단단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에게 설명 잘하기’ 캠페인 실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9월부터 10월까지 ‘환자에게 설명 잘하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CS위원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선정해 진행되며 이번 9~10월의 캠페인은 ‘친절하게, 쉽게, 설명하기 캠페인’이란 주제로 고객을 성심 성의껏 대하는 친절한 병원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응대방법을 다룬 원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각 부서별, 고객 접점별 상황에 맞는 ‘고객응대 표준 지침서’를 제작하여, 이를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등 병원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CS위원회는 7~8월 ‘인사 잘하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11~12월 ‘전화응대 잘하기’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심이 통하는 감성 친절서비스를 실천하는 병원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환우를 위한 음악회’ 열어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은 9월 13일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우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음악을 통하여 잠깐이라도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계원예술고등학교 ‘여우별’팀의 음악봉사로 진행되었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드라마 대장금 중 ‘오나라’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선보였으며, 음악회를 관람한 입원환자는 “무료했던 입원생활이 음악회를 통해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주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일산권 산학협력 우수연구자 현판식 및 교수연구동 개소식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교육/연구 전용공간 확보를 위하여 종합강의동 5층을 의료원 교수연구동으로 개소하였다. 현재 종합강의동 중 4,955㎡를 의학계열 교육 연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독립된 연구전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학계열 교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또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1층에 있던 교수연구실의 이동에 따라 입원병실 확충으로 수익증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교수연구동 개소식과 함께 일산권역 산학협력 우수연구자 현판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우수연구자는 의학과 임근일 교수, 이애영 교수, 김동익 교수, 이무용 교수, 권범선 교수로 5명이 선정되었다.



경주권 산학협력 우수연구자 현판식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권역 산학협력 우수연구자 현판식이 열렸다. 이번엔 선정된 우수 연구자는 의과대학 임현술 교수와 김상규 교수, 한의과대학 박용기 교수로 연구실 앞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명의의 현판을 부착하였다.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교수진들이 연구와 개발의 리더로서 다른 교수들에게 연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연구분위기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

했다. 아울러 의무산학협력팀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교내 모범이 된 우수연구자에 대한 포상과 이를 통한 다른 교수들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4 간호학과 인증평가 시행

10월 29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경주캠퍼스 이계영 총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와 병원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방문인증평가가 시행되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총 6개 영역에 걸친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의 서면평가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방문평가에서는 각종 비치자료의 확인, 학생 면담, 핵심 간호술기 시험, 학내 주요 시설 확인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DUMC 인사·동행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논문 ‘Tissue Engineering’지 표지로 채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의 논문이 미국에서 간행되는 조직공학의 유수 저널 ‘Tissue Engineering’(IF: 4.2) 2014년 10월호에 표지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표지에 실린 사진은 만능 줄기세포(IPSC)가 연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찍은 모습으로 논문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이번 호에 실리게 되었다. 임균일 교수는 현재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재생의학기술을 바탕으로 손상된 인체조직 및 장기복구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Tissue Engineering’은 1995년 조직공학 태동기에 미국에서 창간된 저널로 현재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TERMIS)의 공식학술지로 세계조직공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비뇨기와 이경섭 교수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비뇨기와 이경섭 교수는 국제인명센터(IBC)의 ‘2014년 세계 100대 의학자’(2014 Top 100 Health Professional)에 선정되었다. 국제인명센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이경섭 교수는 현재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이사장, 전립선 레이저 연구회 회장, 대한 암연구재단 집행위원, 대한비뇨기과학회 평의원 및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3년 연속 영국 인명사전(IBC)이 선정한 올해의 주목받는 교수, 영국 IBC에서 선정하는 2009년도 국제 히포크라테스상, 포항 MBC 삼일문화재단의 특별상 등을 다수 수상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신흥묵 교수, '제4대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선임



제4대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에 신흥묵 동국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17일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으며, 선임 신흥묵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 원장은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과장, 동국대학교 한의학 연구소장을 비롯해 지난 2000년에는 3년간 하버드 의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IBC 2010년판의 ‘올해의 의학자’에 선정된 바 있으며, SCI급 저널 등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7건의 특허등록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eCAM(SCIE 국제저널)의 편집위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허준 동의보감상’ 수상자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용기 교수 선정



지난 10월 2일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의보감상 학술분야 수상자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용기 교수가 선정되어 제 14회 산청한방약초 축제 개막식 특설무대에서 수상했다. 동의보감상은 한의학의 육성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의술 정신을 실천한 학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것으로 2004년 제정되었다. 박용기 교수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선도 기술개발사업 및 한의약육성제품화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학과 첨단 현대의학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한의약기반 천연물 의약품으로 만성신부전과 뇌졸중 및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전통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학의 제약산업화를 통한 한방산업 실용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나눔의 동행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장사 주지 화진 스님, 장학기금 전달

시골 절 주지인 비구니 스님이 인재불사를 위해 사후 시신과 삼보정재 보시를 약속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라남도 영암 지장사 주지 화진 스님은 8월 21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찾아 이계영 총장에게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한 뒤 사후 시신 기증과 향후 지장사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더했다. 화진 스님은 “불교 발전은 인재불사에 있으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훌륭한 불교의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사후 시신을 기증하고,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화진 스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스님, 발전기금 전달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원장인 묘전스님은 9월 21일 동국대학교 의료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1천만원을 기부했다. 묘전스님은 이전만 불자들의 염원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에 예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금이나마 불교병원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묘전스님은 현재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가족들의 행복한 자비복지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모아둔 사재로 이루어진 기부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동문 장학금 기탁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동문회(이하 동재동 / 회장 조종훈, 동국의대 87학번)에서는 재활의학교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에 동재동 발전기금 오백만원을 기탁하였다. 동재동 발전기금은 후학들이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외학술탐방지원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외학술탐방지원금은 학생들이 방학 중에 해외 우수대학과 병원을 방문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제안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동재동 조종훈 회장은 “앞으로 계속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병원발전기금으로 500만원 기탁

KB국민은행 서라벌지점(지점장 현인식)에서는 9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KB국민은행 서라벌지점 현인식 지점장은 전달식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지역 유일 대학병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지켜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이렇게 기금을 기탁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부해주신 뜻을 담아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돌려드리는 병원이 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병원발전기금은 불우환자 지원, 진료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의료 및 임상실험기자재 구입, 연구기금, 기타 병원 발전에 쓰여진다.



미대생을 꿈꿨던 신경외과 양승엽 교수,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나무

신경외과 양승엽 교수



위급하고 중대한 질환을 다루는 신경외과.
이런 수식어를 입증이라도 하듯 신경외과 양승엽 교수는 인터뷰 시간 직전까지 수술방에 있었다. 생명이 오가는, 심장이 쫓기해지는 순간에서 막 벗어난 의사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까,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양 교수는 신경외과에 대한 설명을 조곤조곤 시작했다.
지친 기색이라고는 없는, 오히려 힘이 들어간 그의 눈빛에서 신경외과에 대한 자긍심이 읽혔다.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의사인 제가 실력 있고
건강한 나무일수록
환자에게 나눠줄 것이
더 많아지겠죠

위급하고 중대한 뇌손상 다루는 신경외과

흔히 혼동하는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분야다. 신경외과는 두통, 어지럼증, 마비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신경과와 증상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신경과는 비수술적으로, 신경외과는 수술적으로 치료되는 질환을 주로 다룬다. 최근 주목받는 치료법 가운데 하나는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수술이다. 병변 주위의 정상 뇌 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극소화하면서 병변에 대해서는 한번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조사해 마치 칼로 수술하듯 정교하게 원하는 부위만 치료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방사선수술은 돋보기로 햇별을 모으듯 고용량의 방사선을 병변에 조사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고 회복이 빠르다. 방사선수술은 신경외과에서 시작했다. 장기와 달리 뇌는 고정된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안정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일부 질환의 경우 방사선수술 후 곧바로 마라톤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혈관 안에 미세도관을 삽입해 치료하는 뇌혈관내수술도 주목 받는 최신 치료법이다. 이 수술 전문의료진이 2명이나 있는 병원은 경기북부권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신경외과의 주요 진료분야는 뇌 및 척추종양,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 척추질환, 수두증, 안면경련, 신경계 외상 등이다. 수술용 칼을 쥔 의사에겐 어느 수술대나 다 위급하고 중대하겠지만, 뇌손상(외상에 의한 뇌손상부터 뇌와 관련된 각종 질환군)을 다뤄야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들에겐 그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드라마 주인공이 병에 걸렸다 하면, 뇌종양이던 때가 있었잖아요. 드라마를 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내세운 질환인데, 그만큼 위급하고 중대한 질환을 다루는 게 신경외과예요. 판단과 결정을 빨리 해야 하니까 1분 1초가 아깝죠. 그러다보니 신경외과 전문의 대부분 성격이 급해요. 저도 예외 없죠(웃음).”



미대생 꿈꾸던 신경외과 전문의

그래서 물었다. 원래 급한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직업병’인지.
“예전엔 시집을 많이 봤어요,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외국에 가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가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감상하곤 했죠. 성격이 변한 거죠.”
고등학교 시절, 그는 미대 진학을 원했다. 미술 실기 시험에서 10점 만점에 11점(아쉽게도 그 작품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미술교사가 자신의 화실을 내주며 언제든 머물며 그림을 그리라고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도 해줬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남자가 미대에 진학한다면 그리 달갑게 보지 않았던 때였다. 결국 어머니와 형의 권유로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엔 의과 공부보다 사진반 동아리 활동에 더 열중했다. ‘순간 포착’의 짜릿함이 좋아 셔터를 눌러 대고, 꼬박 2년간 암실작업에도 몰두했다.
인턴시절 외도(?)하던 그의 눈과 마음을 신경외과 쪽으로 끌어온 건 어느 꼬마 환자였다. 뇌 속 물길에 막혀 뇌압이 높아진 위급한 환자였는데, 치료를 마친 그날 저녁부터 쫓알대던 꼬마 모습이 그에게겐 적잖은 충격이었다.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 그야말로 극적이었어요.”
신경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후의 생활은 예상한 그대로였다. 생명을 살리느냐, 불구가 되게 하느냐를 가르는 수술방에선 극심한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까다로운 수술을 끝낸 후 환자가 깨어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의 기다림 또한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 특히 소아 환자인 경우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일 수도 있어 더 초조했다. 의사라는 직업을 잘못 선택했구나, 후회할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일일이 털어놓을 수도 없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땐 야속해요(웃음).”

의사 후회한 적 있어도, 신경외과 선택 후회 없어

지난해 늦둥이 딸이 태어나고 1년간의 캐나다 연수를 마치면서 생활에 변화를 주기로 마음 먹었다.
요즘 그는 퇴근 후나 주말엔 카메라를 든다. 대학 시절에나 지금에나 그는 여전히 카메라에 ‘순간’을 담는 일을 좋아한다. 찰나와 같은 순간에 스치는 인물 표정처럼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일이 즐겁다.
“가을 냄새, 감촉으로 느껴지는 계절도 카메라에 담고 싶어요.”
요리도 그의 취미 중 하나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레시피를 따라하는 대신 식재료로 이런저런 궁리를 해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요리는 창작’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요리프로그램도 잘 챙겨본다. 빵 만드는 것을 즐겨 반죽기와 효모도 사줬다. 기회가 된다면 한식조리사 자격증에도 도전해볼 참이다. 정년퇴직 후엔 바비큐와 맥주(그는 ‘치맥’보다 이 조합을 더 좋아하는단다)가 있는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식당을 해보고도 싶다.

아내의 반응? “의사가 천직”이란단다.

“의사가 된 걸 후회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신경외과, 특히 뇌

종양 전문의가 된 건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뇌종양은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중질환이예요. 그럴 때 든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참 다행이죠.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의사인 내가 실력 있고 건강할수록 환자에게 나눠줄 것이 더 많아지겠죠.”
적어도 ‘그 의사는 만나지 말아야 했어’라는 말을 듣진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는 ‘꼭 만났어야 할 의사’로 충분히 보였다.
“신경외과 질환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많아요. 인간이 뇌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신경외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의 눈이 다시 빛났다.

양 승 엽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전공의, 서울대병원 임상강사.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뇌종양센터와 캐나다 BC 주립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를 연수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International Stereotactic Radiosurgery Society 등에서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문진료분야

뇌종양, 방사선 수술, 소아 신경외과, 정위 가능 질환(운동 장애, 안면 경련), 뇌출혈 및 외상, 수두증

진료시간

오전 » 월, 목 오후 » 목
문의 » 신경외과 외래 031. 961. 7202

Introduce

취재 김은정 기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양·한방 통합 뇌손상집중치료센터 뇌손상 환자, 발생 시점부터 재활치료까지 원스톱 관리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양·한방 통합 뇌손상집중치료센터는 뇌손상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료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이다. 뇌손상이란 외상에 의한 뇌손상부터 뇌출혈과 뇌경색 등의 뇌졸중(중풍), 뇌동정맥기형, 뇌혈관 협착증, 뇌종양 등의 각종 뇌 관련 질환을 포괄하는 질환군을 일컫는다. 뇌손상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질환이다.

24시간 논스톱 통합진료시스템

신경외과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단순 뇌손상 환자부터 다발성 타장기 손상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 환자까지 내원 시점부터 논스톱 집중 치료가 가능하다. 24시간 응급수술 가능한 진료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응급 중환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031-961-7326)도 운영한다.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혈관 중재시술 의료팀 확보

뇌혈관 중재시술이란 두개골 절개 없이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 치료법이다. 뇌손상집중치료센터는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신경외과 교수들로 이뤄진 뇌혈관 중재시술의료팀을 구성해 24시간 응급시술이 가능하다.

입원부터 퇴원 후 재활치료까지 양·한방 통합치료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적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한방 통합치료 시스템도 갖췄다. 특히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행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재활, 언어치료, 연하재활 등의 재활치료뿐 아니라 사회사업과 직업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양·한방 통합치료를 통해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상체질의학 접목한 의로서비스 제공

뇌손상 환자들에게 각자의 체질에 가장 적합한 진료와 식이·운동처방을 함으로써 뇌손상 이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도 예방한다.

퇴원 후까지 체계적 전문적 관리

전문코디네이터가 뇌손상 환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도 한다. 뇌손상 후 겪는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도 살핀다. 퇴원환자를 추적 관찰제도를 도입,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치료가 중단되지 않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아울러 갑작스런 환자 상태 변화에 대비해 보호자가 센터 소속 전문 코디네이터와 간단한 연락만으로도 필요 시 외래 진료예약과 입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한방 통합 뇌손상집중치료센터 문의 031. 961. 7326

뇌종양클리닉

뇌종양은 현대의학에서 아직까지 난치병으로 분류된다. 신체 기능을 직접 관장하는 뇌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선 아주 정교한 수술기법이 필요하고, 뇌종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악성종양의 경우 정상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한데다 종양의 완전적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뇌종양클리닉은 고도로 숙련된 수술기법뿐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수술계획에 필요한 첨단장비,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등 복합적인 치료계획을 갖춘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 클리닉이다. 문의 031. 961. 7202

뇌혈관질환클리닉

우리나라 성인 사망원인 중 암 다음을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클리닉이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조기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도 한다.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좀 더 쉽고 가깝게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는 클리닉이다. 진료 분야는 뇌동맥류, 뇌출혈, 허혈성 뇌혈관질환, 경동맥 협착증, 뇌동정맥기형, 외상성 뇌혈관손상 등이다. 문의 031. 961. 7202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눈(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과
서익수 교수

전문진료분야
백내장, 외안부(안구표면질환, 건성안, 각결막염, 익상편), 녹내장, 콘택트렌즈
진료시간
오전 »월, 수, 토(격주) 오후 »월, 목
문의 »안과 외래 054. 770. 8256



강가 억새꽃을 보며 가을을 음미하던 게 었그제 같은데,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에 화들짝 새 계절이 왔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렇게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 머지않아 다시 봄, 여름, 가을을 맞고 또 보내게 될 터이니, 머문 듯 흘러가는 것이 세월인가 보다. 우리 안과 의사의 세월은 눈병 따라 흘러간다. 봄꽃들과 함께 피어나는 알레르기결막염, 여름의 열정과 함께 들끓는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 가을 성묘를 앞둔 제초작업에 뜻하지 않는 안외상, 그리고 차갑고 건조한 겨울 북서풍과 함께 오는 안구건조증이 안과 의사의 계절적 감각을 일깨운다.

봄, 날리는 꽃가루에 눈이 괴로워

통통 튀는 정구공마냥 생기발랄한 신입생으로 캠퍼스가 가득 차는 봄날, 병원 복도는 알레르기결막염 환자들로 북적거린다. 특히 이때는 건조열(乾草熱)결막염이라고도 하는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이 기승을 부린다. 꽃가루, 풀, 동물성 털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대개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해 비특이성 결막염으로 나타나는 데, 갑자기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며 충혈 되는 증상을 나타낸다. 결막부종으로 인해 눈이 눈

주위 조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가렵다고 함부로 긁지 말고 냉찜질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안과에서는 항히스타민, 혈관 수축제, 또는 비만세포안정제, 스테로이드 제제, 인공누액 등의 안약을 투여하여 쉽게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체질적으로 오는 병이므로 환자 자신이 병을 잘 이해하고 귀가 후 손을 잘 씻고 눈도 인공누액으로 세척해 내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름, 전염성 강한 결막염의 계절

강렬한 여름 태양 못지않게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때다. 한번쯤 유행성각결막염이나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걸려본 이는 이 말을 실감할 것이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장내바이러스나 간혹 콕사키바이러스란 놈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타고 퍼져 나가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한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약 1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데, 초기에는 충혈과 통증이 있고 눈물이 많이 나온다. 발병 후 약 1주일에서 열흘이 되면 병은 절정에 이르고, 각막 중심부에 결막염이 심해지면서 이물감, 유루증, 눈부심 등을 동반한다. 심한 사람은 전신증상으로 몸

살을 호소하며 콧바퀴 앞 림프절의 비대가 만져진다. 약 3~4주간 지속되면서 서서히 가라앉으나 후유증으로 각막 상피하 혼탁이 남아 시력감소를 호소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대개 시간이 경과하면서 좋아진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은 그것보다 좀 더 성질이 급해 잠복기가 8~48시간, 경과 기간 5~7일 정도이나 전염성 역시 성질만큼이나 급해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 대부분이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결막염의 통상적 증상들을 동반하는 한편 환자 대부분에서 눈이 붉게 출혈되는 결막 하 출혈이 나타난다. 둘 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므로 특별한 약은 없다.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 항생제 안약, 각막 혼탁을 줄이기 위해 조심스러운 스테로이드 안약, 그리고 인공누액 등이 단기 치료법으로 쓰인다. 따라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고 곧 치료다.



가을, 벌초시 안외상 주의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안과의사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기도 하다. 효성스러운 자손들이 벌초를 하다가 제초기에 의해 튀는 돌이나 나무, 칼날, 쇠조각 등에 의해 눈을 다쳐오는 경우가 무척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묘길에 잘

익은 밤송이를 따려다 그만 밤송이가 눈에 떨어져 가시가 눈에 박혀 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이런 안외상은 안검 열상이나 각막 미란의 다소 경미한 경우부터 각막열상 및 각막이물, 외상성 백내장, 심하면 안구파열에 이르기까지 워낙 다양하고,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안과의사에게 가을은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 계절이다. 이 역시 다친 후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기 전에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제초 작업 시 반드시 보안경을 사용하고 밤송이를 딸 때는 조심하길 당부한다.



겨울, 날씨만큼이나 건조한 눈

안구건조증 환자는 사계절 내내 많지만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한다. 과거에는 안구건조증이 나이가 들면서 눈물 분비가 줄어 생기는 당연한 노화현상으로 가볍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책, 컴퓨터, 스마트폰, PC 등에 집중하느라 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안구건조증의 병리적 설명도 단지 눈물 생성 부족이나 과다 증발의 '눈물 양'의 개념에서 눈물 내에 염증 물질이 축적되어 이상이 생긴다는 '눈물 질'의 개념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2007년 DEWS(Dry Eye Work-Shop)에서도 건성안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눈물과 안구표면의 질환으로, 눈물의 삼투압과 안구표면 염증을 동반하고 안구 불편감, 시력저하, 눈물층 불안정을 야기해서 안구표면손상을 줄 수 있는 질환'이라 정의하였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지나친 난방을 피하며,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60% 정도로 맞추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킨다. 장시간 컴퓨터나 서류를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50분에 5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한다. 건조증이 계속되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안구건조증의 타입이나 심한 정도에 맞는 인공누액과 항염증안약 그리고 필요시 온찜질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 각막 이상으로 인한 영구 시력 감소의 불행을 막아야겠다.



2014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한 해가 간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으니 맑고 밝은 눈으로 자신의 시간을 똑바로 보도록 하자. ●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노하우

배가 자주 아픈 청소년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내과
신길조 교수

전문진료분야
사지병증, 심장질환, 어지럼증,
중풍(뇌경색, 뇌출혈), 당뇨병,
비뇨생식기질환, 내과순환계질환,
소화기질환

진료시간
오전 »월, 목, 금, 토 오후 »월, 수
문의 »한방내과 외래 031. 710. 3710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긴다. 소위 좋은 대학이 보다 나은 장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부모와 사회 분위기 때문에 12년간의 학교생활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내신 성적을 챙겨야 하고 가능하면 명문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행 학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기는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로 몸이 성숙하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형성된다. 이때 또래들과의 놀이와 관계맺기는 체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적을 생각한다면 이런 활동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억제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몸과 마음에 이상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수면부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참을성 없이 조금해지거나 짜증이 잦아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신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특별한 이상 없이 배가 자주 아픈 학생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공통적인 요소를 나열해보면 성격이 대개 내성적이고, 나쁜 결과를 얻을까 신경을 써서 특히 시험을 앞두거나 시험 기간 중에 배가 아픈 경우가 많다. 당연히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시험에도 복통이 반복되곤 한다.

개인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지만 가스가 많이 차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배변 후의 잔변감, 잦은 설사, 혹은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식사 중 혹은 식사 후 배변이나 설사를 반복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한방적으로 진찰을 해보면 장이 차거나, 스트레스로 소화기능이 제한되는(木克土) 경우가 많다. 양방적으로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혹은 자극성장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내려진다.

이런 청소년은 복통이 있기 전부터 설사가 잦았거나 부모님들이 장에 이상 증상이 있고 예민한 성격의 학생들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주로 인한 증상발병이 많은 어른과 달리 간식과 찬 음료,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라면, 튀김, 치킨, 피자, 매운 떡볶이, 햄버거, 찬 우유, 찬 주스 등은 장에 이상을 가져오기 쉽다.

청소년들에게 복통을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추천해본다.

- 1.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한다.
힘든 상태인데도 억지로 노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힘든 상황이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본인이 인격체로서 성숙해가는 단계임을 숙지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2. 기상과 취침,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킨다.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증진과 질병예방에 필수적이다.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자는 잠은 피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평소에 충분히 자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인다.
- 3. 운동을 꾸준히 한다.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낫다. 운동을 한다고 곧바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그로 인한 각종 알레르기질환, 감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아파서 공부를 못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잦은 복통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하면 해가 될 수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한다.
- 4.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배가 자주 아픈 경우 대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많다. 뇌가 활동하는 데는 무척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아침을 먹는 것이 두뇌활동에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간편식보다는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아물러 늦은 시간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습관은 고쳐야 한다. 발효음식은 특히 장에 좋는데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청국장, 낫토, 요구르트는 장을 튼튼하게 만든다. 특히 변비가 심하다면 아침 공복에 차게 먹는 게 도움이 된다.
- 5. 자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한다.
위장관의 운동과 가스배출에 도움이 되어 소화를 돕고 복통을 줄일 수 있다. ●

특별한 이상이 없이 배가 자주 아픈 학생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발생한 것들이다.





달과 같은 가섭(迦葉)의 얼굴 표정

번잡한 세상의 다툼 없는 달빛… 넉넉한 그를 닮는 게 수행(修行)이라
마음속 상처는 용서해도 남고 사랑도 미움도 말·표정서 싹트니
성 안내는 그 얼굴이 공양구(供養具)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향(香)이로다

나는 달빛 감상을 즐긴다. 달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평화롭기 때문이다. 번잡한 세상의 다툼이 저 달빛 속에는 없다. 오직 잔잔한 추억과 삶의 고운 이야기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탁발(托鉢)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재가자(在家者)의 집에 가거든 마땅히 달과 같은 얼굴을 하고 가라. 마하가섭(摩訶迦葉)은 달과 같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처음 출가한 수행자처럼 수줍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교만하지 않은 얼굴로 재가를 찾아간다.”

탁발을 나가는 부처님의 빼어난 제자인 가섭의 표정이 그려진다. 달과 같은 얼굴을 하고 발우(鉢盂)를 들고 거리를 지날 때 어느 누가 가섭의 빈 발우에 공양물을 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발우에 밥을 담아 달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달 같은 표정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가섭의 얼굴 표정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수행자라면 누구나 가섭과 같은 얼굴 표정을 꿈꾼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언젠가 절 아래 마을 사람과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다. 물 때문이었다. 절에서 내려가는 계곡물을 아랫마을에서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절에 온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供養具)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香)이로세.

아이들이 여름날 땀다고 그 계곡에서 물장난을 한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공교롭게도 아랫마을 사람이 본 것이다. 그는 썩씩거리며 달려와 따지듯이 나를 몰아쳤다. 절에서 애들도 단속하지 못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화가 났다. 나도 정색을 하고 따지듯이 물었다. “이 산이 누구 산입니까? 절 소유의 산 아닌가요? 또 이 물은 절의 산에서 났으니 절이 주인 아닌가요? 아니 물값을 한 번이라도 내고 먹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물값을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은 이내 풀이 죽고야 말았다. 워낙 내가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를 치니까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다 그 사람이 마지막 반격을 가했다. “아니, 무슨 스님이 그리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하세요. 점잖지 못하게.” 나는 그만 입을 닫고 말았다. 스님이 뭘 그러느냐는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이 내려가고 나는 장면을 하나하나 되돌려보았다.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스님이 어떻게 언성을 높여가며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스님의 모습을 나는 그만 깨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가 앞으로 스님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핏대나 올리고 소리나 지르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나는 수많은 스님에게 죄를 지은 셈이었다.

좋지 않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내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 갓 출가하여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였다. 해인사 강원은 쉽게 말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데 1학원에서 3학년까지는 한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잠을 잤다. 그때 그 방에는 80명 가까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함께 자그마한 경상(經床)을 앞에 놓고 각자가 배우고 있는 불경을 읽을 때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목청껏 경을 읽어야 목청이 터져서 다음에 염불도 멋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선배들로부터 들은 터라 경을 읽는 시간이 되면 목청껏 경을 읽고는 하였다.

하지만 경을 읽다 보면 졸리는 순간이 있었다. 대개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날은 윗반 스님에게 호출을 당하고야 말았다. 무서운 스님이었다. 나는 스님의 경상 앞에 꿇어앉아 장광설을 들어야 했다. 승랍(僧臘)이라고 해야 고작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해인사 강원에서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것이었다. 해인사의 규율은 육군사관학교보다 더 엄격했다.



성 전 스님

남해 염불암 주지,
월간 <해인> 편집장과 <선우도량> 편집장,
남해웅문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불교방송(BBS) 프로그램 ‘행복한 미소’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 손>, <비움, 아름다움, 채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등이 있다.

스님의 경책(警責)을 들던 중에 다리가 아파 몸을 비틀다가 그만 그 윗반 스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순간 스님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눈 깔아요” 순간 예리한 칼날이 가슴을 베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출가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비정한 말이었다. 얼굴에 눈은 내리깔았지만 마음은 더욱 깨끗하게 적의(敵意)를 품고 고개를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스님과의 일을 기억한다. 나무 기둥에 박힌 못을 뽑아도 기둥에 못 자국이 남듯이 상처 난 가슴의 흔적은 용서를 해도 남게 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스님을 우연히 한두 번 만났지만 나는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앞에서는 항상 눈을 내리깔아야 했으니까.

말과 표정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미워하고 다투게 된다. 그래서 문수 보살 계승(偈頌)에도 있지 않은가.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供養具)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香)이로세.” 성 안내는 표정과 부드러운 말은 얼마나 큰 수행자의 가치인가. 달빛 아래서 나는 가섭의 달과 같은 얼굴 표정을 자꾸만 그려보았다. ●



겨울왕국 찾아 떠나는 여행

겨울에 더욱 빛나는 평창 추천 여행지

누군가는 눈을 좋아하면 아이라 하고 싫어하면 어른이라 한다. 어른들은 두껍게 쌓인 눈은 출퇴근의 장애물이자 사고를 유발하는 불편한 것이라 말한다. 달력을 한 장 넘길 때는 몰랐지만 점차 감정이 서서히 말라가고만 있다. 그러나 여행에서 만나는 순백의 눈은 어른과 아이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다. 누구나 아이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놀 수 있는 세계, 시리지만 낭만적인 겨울왕국을 찾아 떠난다.

쏟아 양털 같은 백색 들판, 양떼목장

꼭설이다.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다. 그렇게 평창의 밤 하늘은 눈이 점령한다. 이른 아침 조금씩 눈발이 잦아든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철저하게 방한 장비로 무장하고 평창으로 향한다. 겨울은 왔지만, 적설량이 적어 눈 구경하기 어려운 한 해다. 진정한 겨울 낭만 속으로 달려가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 깊은 밤 내린 눈이 모든 차를 거북이로 만든 것이다. 이럴 때는 자가용보다는 고속버스가 좋다. 그렇게 눈발을 뚫고 달려간 곳에는 내가 꿈꾸던 순백의 세상이 열려 있다. 다시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 눈 뭉치가 마치 솜털 같아 보여서일까? 차가운 얼음 알갱이가 잔뜩 쌓여 있어도 시각적 느낌은 따스함이다. 사람들이 내어 놓은 길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겨울 사이에 쌓인 눈이 허리춤을 넘을 정도다. 잠깐 중심을 잃어 휘청한다. 그렇게 발을 잘못 디디니 허벅지까지 빠진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눈발에 몸을 날린다.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대자로 누워 팔다리를 휘저어 본다. 머릿속으로는 ‘Snow Frolic’의 음표가 흐른다. 눈을 감고 잠시 있으니 뽕송뽕송한 눈송이가 얼굴로 내려와 간지럼을 태운다. 강아지 물 털어내듯 파드득거리며 눈을 털어낸다. 다시 주위를 살핀다. 촌촌하게 뻗은 나뭇가지 사이로 흰 수염이 자라나고 있다. 가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흰색의 폭포가 만들어진다. 점점 더 굵은 눈이 내린다. 지금 이 순간은 온갖 걱정은 버리고 순수한 즐거움만 남아있다. 겨울에 찾은 양떼목장은 하나의 특권이 있다. 바로 일몰이다. 다른 계절은 일몰과 폐장 시간이 맞지 않아 일몰을 볼 수 없다. 오롯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일몰이고 설원에서 맞이하기에 다른 장소의 무엇보다 더 극적이다. 잠시 후 새하얀 캔버스 위를 붉은 노을이 뒤덮는다. 세상이 붉게 반짝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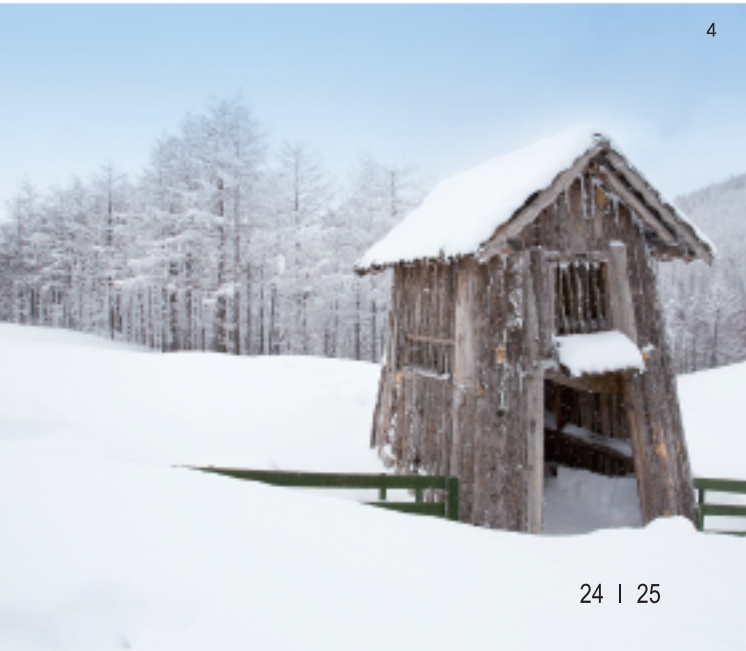
눈보라가 몰아치는 백두대간, 선자령

꿇임없이 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마저도 반쪽이 되어버리는 장소가 있다. 평창의 선자령 이야기다. 날씨 좋은 날에는 저 멀리 동해가 눈에 들어온다. 반대편으로 웅장한 강원도의 산들이 빼곡하다. 숨을 헐떡이며 정상을 바라보니 하얀 안개 같은 것이 휘감고 있다. 밤사이 에 쌓인 눈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다. 바로 눈보라다.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눈 알갱이는 단단하다. 거친 눈보라를 맞으니 따끔하기까지 하다. 소금을 얼굴에 뿌리는 느낌마저도 든다. 겨울의 선자령은 생각보다 쉬운 장소는 아니다. 대설이 내린 날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아이젠 및 보온 장비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겨울의 선자령이 주는 풍경 때문이다. 선자령을 건너라면 간혹 산더미 같은 크기의 배낭을 메고 걷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백패커다. 겨울에 떠나는 캠핑은 다른 계절과 또 다른 멋과 맛이 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자는 데에는 그만한 장비도 필요하다. 이미 겨울 캠핑 장비를 마련해 놓았다면 눈 내린 선자령에서 하룻밤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하늘 위에서 내리는 눈 속의 텐트 치고 앉아 있다면 사rak거리는 눈 소리에 매혹된다. 비 오는 날의 소리와는 또 다른 선율이다.

고요한 백색의 숲, 월정사 전나무 숲길

가을 단풍에 물든 오대산을 보았다고 겨울을 빼놓을 수 없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의 평창은 다른 계절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누군가 하늘 위에서 하얀 물감을 뿌린 듯이 여름의 초록과 가을의 붉은색을 뒤덮는다. 넓은 벌판과 산 그리고 나무 위에는 얼핏 보기에도 두툼한 눈 뭉치가 얹어져 있다. 기운찬 바람이 세차게 눈을 휘감으면 백색

- 1. 선자령 겨울 풍경
- 2. 양떼목장의 일몰
- 3. 월정사 전나무 숲길
- 4. 눈보라 속 양떼목장



바람으로 바뀌어 하늘을 넘실거린다. 그렇게 하늘을 가로지르며 다니는 말팔량이 같던 함박눈들도 전나무숲길에 도착하면 달라진다. 뽕뽕하게 세워진 나무 사이를 지나며 차분해진다. 하늘에서 살포시 땅으로 내려앉은 하얀 천사들은 다소곳하다. 손이며 머리에 내려앉은 그들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뽐낸다. ‘사그락’ 눈이 몸에 닿으며 내는 소리다. 주위의 적막함 사이 속에서 들리는 그들의 노랫소리다. 이미 이 장소는 현실이 아닌 환상 속의 나라다. ●

주변 여행지

하늘목장 » 평창의 대표적인 목장인 양떼목장의 아성에 도전하는 목장이 하나 있다. 바로 40년 만에 대중에게 공개된 하늘목장이다. 올해는 개방하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라 더 기대감이 크다. **눈꽃마을** » 바우길의 대표적인 겨울길은 눈꽃마을길이다. 마을에서는 봄슬레이 눈썰매부터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 좋은 마을이다.

가는 길 (양떼목장)

영동고속도로 » 황계IC » 용평리조트, 황계 방면 »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강릉 방면 좌회전 » 황계방면 우측방향 » 대관령 양떼목장
네비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 3리 14-104 대관령 양떼목장

평창 겨울 별미

평창올림픽시장에서 판매하는 메밀 부치기와 쿳등치기국수 등의 메밀 음식과 울창이국수 그리고 수수부꾸미는 평창에서 맛볼 수 있는 겨울 별미다. 특히 이름이 독특한 쿳등치기국수는 메밀로만 만드는 국수이기 때문에 면발이 굵다. 뽕뽕한 이 면발은 호로록 먹으면 쿳등을 한번 ‘탁’치고 입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쿳등치기국수라니 재기 넘치는 작명 센스다.

피부를 젊게 하는 늙은 호박



때가 되면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게 마련. 이맘때면 방 한 구석에 묵혀둔 늙은 호박이 그렇다. 늙은 호박을 늙어 못생겼다고 멸시하면 안 된다. 늙어서 겉이 단단하고 속의 씨가 잘 여문 늙은 호박은 말 그대로 애호박에 비해 성숙한 호박이라고 보면 된다. 쌀쌀해진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웜업푸드(Warm-up Food)’다.

잘 익은 호박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정겹고 마음이 포근해진다. 요리를 해서 먹으면 몸에 좋은 보약음식으로 변신한다.

저장성이 좋은 늙은 호박은 식량이 부족하던 과거 구황(救荒)식품으로 이용됐다. 요즘은 아침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좋다. 미녀들의 필수식품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비타민A 성분과 비타민B2, C가 풍부해 계절이 바뀌면서 흔히 나타나는 피부 건조증과 염증, 피부 노화에 따른 기미와 잔주름 예방에 효과가 크다. 특히 산모의 부기를 빼는 데는 호박 만한 것이 없다.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이다.식이섬유도 많아 배변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늙은 호박의 당분은 소화흡수가 잘 돼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회복기 환자에게 좋다. 늙은 호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늙은 호박으로 호박잎수제비, 호박청, 호박엿, 호박수정과, 호박묵 등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늙은 호박을 이용한 호박죽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국민대표 간식이며 영양식이다.

호박죽은 간단한 요리인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어떻게 만들지?’하며 어려워한다. 오늘은 늙은 호박으로 정기를 담은 뜨끈뜨끈한 호박죽을 한번 끓여보자. 누린 호박을 삶아서 으개 찹쌀가루 넣고 은근한 불에 주걱으로 저으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추위를 잊게 한다. 삶은 팔과 둥글둥글 새알심까지 띄워주면 최고급 호텔 요리 부럽지 않다.

온 가족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호박죽 한 그릇 나눠 먹으면 ‘호박 같은 가족’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퍼질 것이다. ●



류 현 미 전통음식연구가
전통식문화 연구소 소장.
KBS ‘한국인의 밥상’,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SBS ‘모닝와이드 맛있는 요리대결’, MBC ‘공감’ 등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국내외 잡지 기사를 통해
우리 음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일보에 칼럼을 연재 중이며
저서로 <한식대사 류현미의 집밥초대>가 있다.

RECIPE



● **재료**
호박 1400g, 호박 물 4C,
붉은팥 100g, 팥 삶은 물 16C
▷ 찹쌀물(찹쌀가루 2C, 물 1C, 설탕 4T, 소금 2T)
▷ 새알심(찹쌀가루 2C, 소금 1T, 물 적당량)

- **만드는 방법**
- ① 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씨와 속은 긁어낸 후 찌기 좋은 정도로 잘라 준비한다.
 - ② 찌기에 물을 붓고 센불에서 5분 정도 끓인다. 이후 호박을 넣고 20분 정도 찐다.
 - ③ 찐 호박의 과육을 긁어내고 믹서에 물을 넣고 함께 곱게 간다.
 - ④ 붉은 팥을 씻은 후 일어 물기를 뺀다. 냄비에 붉은 팥을 넣고 물을 부어 센불에서 끓이다가 팥물을 따라 버린다.
 - ⑤ 다시 물을 붓고 센불에 올린다. 물이 끓으면 중불에서 팥이 익을 정도 삶아서 건져 놓는다.
 - ⑥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체에 쳐서 끓는 물에 익반죽한다. 직경 2cm 정도로 새알심을 만들어 준비한다.
 - ⑦ 냄비에 갈아놓은 단호박물과 물을 붓고 센불에 올린다. 끓으면 중불로 낮춰 찹쌀물을 넣는다.
 - ⑧ 나무주걱으로 멍울이 생기지 않도록 저으면서 끓인다. 약불로 낮춰 뚜껑을 덮고 20분 정도 끓인다.
 - ⑨ 삶은 팔과 새알심을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인다.
 - ⑩ 죽이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기호에 따라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끓인다.
 - ⑪ 도자기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낸다.



공진단(拱辰丹) 이야기

“비아그라!”, 이제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빙글 웃음 짓게 하는 이름을 가진 국산 복제약들이 나오긴 하였지만 하여간 이 약이 한의계에 미친 영향은 강하고 다양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전통적인 고가 보약이었던 공진단 역시 그 영향을 비껴갈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의 효능이 주목받게 되었는데, 단순한 남성용 보양제가 아니라 갱년기장애, 수험생의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약으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원래 공진단은 중국 원나라 때의 탁월한 임상 경험 처방들을 수록한 책인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에 처음 실린 처방이다. 5대 동안 대를 이어 의업에 종사한 집안의 명의로였던 웨이이린(危亦林)에 의해 서기 1337년 저술된 이 책은 원나라 황실의 관립 의료기관인 태의원에서 장기간의 검토 후 1345년에 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황실의 결정이 관여되었으므로 공진단이 황실에 진상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다.

동국대학교한방병원에서 조제하는 공진단의 구성 약물은 원방 그대로인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 네 가지이다. 이 가운데 사향은 사향노루 등의 분비물이 응고된 것으로 고급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기혈 순환촉진, 중추 신경계 기능 개선, 면역 기능 강화, 심장 기능 개선, 신진대사 촉진 및 항피로 등의 효능이 있다.

녹용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능 강화, 심장기능 개선, 조혈 기능 개선, 성장촉진, 폐 기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 당귀는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갱년기 장애, 두통, 빈혈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산수유는 유정과 대하를 치료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

이러한 약물들이 조합되어 다양한 효능이 발현되는데, 최초로 소개되었을 때의 치료 목표는 ‘남성이 중년에 이르러 특별한 질환 없이 무기력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질이 뜨겁고 건조한 약물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자윌성이 강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처방은 몸에 있는 물의 기운은 상승시키고, 불의 기운은 하강시키는 수승화강(水升火降)의 기능을 발현하여 인체의 생리기능을 정상화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쉽게 풀어보면, 체질에 따라 인삼에 의해 열이 뜨고 혈압이 오르거나, 숙지황에 의해 소화장애나 설사가 생기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나 살이 찌는 염려 없이 쓸 수 있는 보약이 바로 공진단이라는 것이다.

이후 한의학 고전에서 자궁과 난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불임증, 내분비 기능 이상에 의한 무월경과 월경불규칙, 노화와 허약에 의한 요통 등으로 공진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근래에 밝혀진 효능은 주로 신경정신계통에 작용하는 것인데, 공진단이 신경 성장인자(NGF)의 분비를 유도하고, NGF와 유사하게 기능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학습능력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그밖에 간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역시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진단의 여러 효능과 적응증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만성피로 회복 - 항 피로 및 수술후 체력과 면역 기능 회복
- 선천적 허약 보강 - 성장 촉진, 뼈 강화와 골다공증 예방
- 스트레스 완화와 항우울 - 직장인과 수험생 스트레스, 우울증의 개선
- 내분비 기능 개선 - 생식기능 강화, 성 지구력 개선, 배란개선, 월경 정상화, 갱년기장애
- 해독 - 알코올에 의한 간독성 개선
- 조혈 및 혈액순환 촉진 - 빈혈, 수족냉증, 저림 등의 개선
- 신경기능개선 - 기억력 및 학습 기능 개선, 치매 예방
- 호흡기 강화 - 잦은 감기, 소아 천식과 노인 해수, 만성폐색성 폐질환의 개선과 예방
- 항노화 및 피부기능 개선 피부 보습, 주름 억제, 기미의 완화

그렇다면 공진단은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 성인의 경우 일일 1~2회 식전 한 시간쯤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용량을 조절하도록 한다. ●



동국대학교한방병원에서 조제한 '공진단'은
세의료효방(世醫效方)에 황제에게
진상했던 보약 처방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보양강장제입니다.
러시아산 녹용(鹿茸)의 최상품 부유인 분골과
식물의약품인전청에서 인증한
정품 사향(麝香)을 사용하고,
당귀신(當歸身), 산수유(山茱萸), 꿀과 함께
정성껏 배합하여 원방 공진단 고유의
탁월한 효능이 발휘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7000
한방약국 031-961-9130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710-3700
한방약국 031-710-3750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748-9300
한방약국 054-770-126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무팀에 방문하신
고객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원무팀에 가서 산정특례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산정특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진료비가 큰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중증질환 및 관련 합병증 치료시 급여 비용중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감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감감혜택		
구 분	특례기간	본인부담
암	5년	5%
심장질환	30일(수술,입원)	5%
뇌혈관	30일(수술,입원)	5%
희귀난치	5년	10%
중증화상	1년	5%

▶ 심장 ·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특정 수술시 입원 30일까지 적용

등록절차
담당의사의 확진 후 요양기관(본원 원무팀) 또는 공단지사로 신청, 등록 합니다. ●

교통사고 환자로 타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중인데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원은 양 · 한방병원이 같이 있으나 절차는 동일 합니다.
먼저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 본원으로 전원을 말씀을 하시고 본원으로 지불보증서 발송을 요청하세요.
본원 진료일에 지불보증서가 본원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원무팀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입원 여부를 결정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 여부는 지불보증서의 한도(무한)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진료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기왕증)는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한방 진료에도 교통사고와 상관없는 탕약 등의 처방은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

5인실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을 받고 하루 동안 중환자실에
가야합니다. 다시 일반병실로
나올 때 지금 쓰고 있는 5인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이중병실 사용시 병실로 본인부담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4~6인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함을 요양기관 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자 가족이 그 병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 측에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임이 부담합니다. ●

입원하려는 환자가 많은 텐데
입원환자들에게도 우선 순위 등의
기준이 존재하나요?

입원순서에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원을 배정하는 순서는 환자의 상태, 진료과, 성별,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격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병실 배정을 하고 있으며 응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타병원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하여 전원 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병실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일 내원환자 중 응급수술 및 시술/처치 등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② 수술 일정이 확정된 예약환자
 - ③ 해당 병실이 없어 전일 입원하지 못한 환자 및 입원 연기환자
 - ④ 당일 입원 환자

우선 순위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원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없는데
병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나요?

2014년 8월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 신청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수집 이용 가능합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다이아몬드	50억	무료(50%)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50%)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50%)	무료(50%)	배정	50%(5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50%)	무료(20%)	배정	50%(30%)	50%(3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30%)	20%(20%)		20%(20%)	30%(2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5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 8. 1 ~ 2014. 10. 31

국민은행	₩75,000,000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813,810	경주시보건소	₩1,016,250
자승스님	₩10,000,000	이 명 규	₩2,000,000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1,000,000
묘전스님(김성예)	₩10,000,000	이 애 영	₩1,752,4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1,000,000
이 명 목	₩3,152,400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1,310,010	최 진 원	₩1,000,000

강기선	권범선	김미경	김순기	김정은	김호준	박명조	박정숙	변재옥	신승민	오민구	윤정미	이선희	이재우	이항년	장인규	정영희	조유미	최상돈	한미진
강도림	권병철	김미성	김시연	김정은	김화평	박미순	박정화	변혜수	신익섭	오상우	윤정분	이 설	이재욱	이항미	장총섭	정예지	조윤미	최석예	한소연
강미소	권보경	김미숙	김아람	김정형	김희순	박미연	박중임	사미선	신연실	오성은	윤정수	이소라	이재항	이현경	장태영	정운영	조은영	최성미	한송이
강병경	권삼숙	김미숙	김아름	김정훈	김효정	박미형	박중현	서미경	신영식	오수진	윤정순	이소영	이재환	이현정	장하리	정원기	조은영	최소영	한영희
강보라	권성애	김미영	김아람	김중은	김효주	박보경	박주영	서상연	신영주	오영섭	윤정원	이소영	이재희	이현정	장형렬	정윤정	조은정	최수진	한용수
강석진	권성옥	김미영	김안나	김중화	김희동	박상용	박주현	서영미	신윤주	오유라	윤지영	이수라	이정미	이현주	장해진	정윤정	조인선	최수진	한윤희
강석진	권소연	김미옥	김어진	김주광	김희선	박상은	박준형	서영완	신은정	오유리	윤 탁	이수은	이정백	이현희	장호근	정은경	조일세	최영아	한은숙
강선영	권신영	김미진	김연선	김주희	김희섭	박석원	박종희	서영완	신은희	오은경	윤형근	이수철	이정연	이형경	장홍기	정은주	조 현	최영운	한은숙
강소영	권오형	김미현	김영권	박지숙	김희영	박선양	박지숙	서 은	신진경	오이솔	윤혜진	이수현	이정우	이해근	전난아	정은지	조현아	최영진	한은숙
강수영	권윤경	김미희	김영미	김지나	김희진	박선영	박지현	서은정	신진의	오정무	유효영	이수환	이정임	이혜숙	전다솜	정은지	조현아	최영택	한인용
강연주	권일진	김민선	김영미	김지예	나경란	박선옥	박지혜	서 준	신현모	오종현	이강현	이순애	이정하	이혜영	전두호	정이선	조혜원	최원경	한정훈
강예은	권재현	김민아	김영복	김지원	나소영	박성림	박지홍	서준석	신혜란	오진숙	이강훈	이소옥	이정하	이호석	전미은	정인수	조혜정	최원용	허남탁
강은경	권준성	김민영	김영은	김지윤	나용용	박성연	박진솔	서휘경	신호승	오진영	이경미	이소출	이정하	이호준	전수현	정인영	조해진	최유안	허은경
강은미	권지윤	김민정	김영은	김지윤	나정용	박성원	박진우	서희주	심문주	오지훈	이경미	이소희	이정혁	이희용	전숙진	정인원	조해진	최윤영	허정현
강은정	권태용	김민호	김영진	김지현	나 현	박성주	박창훈	석상원	심미나	오현주	이경애	이승덕	이정현	이희은	전인숙	정재우	조해진	최은영	허 준
강인선	권혁미	김민호	김영진	김지혜	남기연	박성주	박철중	석수진	심영진	오혜민	이광훈	이승민	이정화	이희주	전종병	정재현	조효순	최은정	허하림
강지영	권현주	김민희	김영진	김지호	남민영	박성혜	박춘근	석진희	심지혜	온상오	이규슬	이승욱	이정훈	이희진	전주영	정주완	주미향	최은정	허희진
강지혁	권혜림	김방희	김영혜	김지훈	남세원	박세원	박현미	설향미	심혜정	왕지혜	이귀숙	이승철	이정희	인승순	전진애	정지애	주봉림	최인영	현미숙
강현우	권효숙	김병철	김영화	김진규	남순미	박세진	박현수	심희진	심희진	우소희	이규섭	이승철	이정희	인준용	정경숙	정지원	주상재	최인주	형 옥
강희구	권희경	김보린	김옥선	김진아	남유화	박세환	박현숙	성낙진	안가혜	우 정	이규욱	이승현	이젠모아	임군일	정경식	정지유	주은명	최재희	홍경희
강유영	권희재	김보미	김용배	김진영	남재은	박소기	박현영	성종순	안광삼	우정숙	이규홍	이승호	이종득	임동욱	정경윤	정지혜	주주환	최정민	홍민재
경보호	김가영	김보연	김용석	김창렬	남현미	박소정	박현정	성효은	안대승	우종필	이근영	이인재	이종은	임동주	정경은	정지혜	주지연	최정석	홍민희
고기연	김갑성	김보영	김용숙	김 철	남혜경	박송이	박현주	소선기	안도화	이영미	이나현	이애영	이종집	임민주	정경철	정진희	지선영	최정현	홍법진
고기환	김경수	김보은	김우경	김철주	노미경	박수복	박현주	소선기	안민아	유광욱	이남주	이연희	이종찬	임민혜	정길석	정태민	지영한	최정현	홍보람
고문수	김경아	김삼기	김원영	김치선	노미숙	박수혁	박현주	소은숙	안선영	유상일	이다혜	이영수	이주경	임선화	정다솜	정하영	전경애	최종기	홍성희
고민정	김경옥	김상규	김유일	김태규	노주원	박수희	박혜진	소은진	안선희	유세정	이단비	이영실	이주영	임선희	정다영	정한숙	진선희	최종민	홍수민
고성웅	김경호	김상근	김유정	김태균	노태훈	박수희	박혜진	소정자	안승원	유소라	이동백	이영애	이주는	임성우	정다운	정학수	진영숙	최주는	홍승관
고수정	김경화	김상아	김영정	김태진	노현규	박숙희	박혜진	소행연	안연순	유수림	이동영	이영찬	이주현	임성희	정명희	정현주	진영초	최준권	홍승욱
고예나	김경희	김상필	김윤주	김태숙	도한호	박순양	박혜진	손귀득	안영길	유영석	이말보	이용석	이주현	임세원	정미라	정현주	진효재	최준용	홍유선
고완영	김관영	김상환	김윤지	김태영	류기영	박순자	박효민	손금영	안주향	유은정	이연경	이용석	이주형	임수환	정미선	정혜은	차수남	최진영	홍은기
고은미	김광기	김세룡	김윤진	김필자	류대안	박순선	박효진	손민정	안지은	유재일	이명규	이용우	이주희	임윤복	정미숙	정혜은	차욱련	최창익	홍은수
고은하	김국현	김서영	김유찬	김희영	류봉하	박신남	박희영	손수원	안지현	유정일	이명종	이용찬	이준규	임윤성	정민기	정해진	채기수	최한기	홍은희
공성화	김균영	김선경	김율리	김하나	류위선	박신애	방대혁	손은미	안창현	유정화	이명희	이윤경	이준길	임윤정	정보경	정호근	채봉희	최한석	홍이내
곽경아	김남희	김선주	김은미	김해민	류윤호	박아름	방영민	손정은	안현미	유주형	이무용	이원용	이지선	임은정	정사라	정호진	채서래	최혜송	홍주혜
곽민정	김다인	김선희	김은아	김해정	류주희	박아연	방정아	손정화	안현정	유지영	이문정	이원호	이지성	임종대	정상욱	정휘수	채송아	최혜용	홍지수
곽법식	김대봉	김선희	김은영	김현덕	마주희	박영근	방현선	손주연	안희덕	유지은	이미영	이유나	이지연	임종수	정석화	정희경	채은미	최현미	홍지혜
곽필희	김도연	김성권	김은정	김현경	모종은	박영진	배경인	손주영	양경승	유지혜	이미희	이유라	이지연	임지원	정선미	정희정	천만중	최혜숙	홍호진
곽현재	김도현	김성아	김은주	김현서	무구스님	박원임	배례아	손희진	양승엽	유진희	이민선	이윤경	이지연	임하연	정선희	정희진	천보혜	최혜정	황동철
곽희경	김도현	김성원	김은희	김현수	문상원	박용진	배미정	송동현	양유리	유창국	이민우	이윤상	이지연	임하영	정세연	조광용	철은스님	최희정	황민혜
곽희재	김동수	김성일	김이겸	김현정	문선희	박유경	배상만	송미리	양재준	유창선	이민정	이윤석	이지영	임현민	정세희	조근대	최경아	추경란	황보미
구기형	김동억	김세린	김이재	김형관	배서영	송우경	김지영	유하나	이병기	이윤정	이영희	이봉기	이현술	임현술	정소영	조동삼	최경희	추경희	황보미영
구남이	김동일	김세린	김이향	김형석	문호남	박은경	배수현	송은호	양지영	유현희	이보용	이윤희	이지은	임현진	정숙희	조민아	최나림	추송식	황보수건
구병수	김동환	김세민	김일화	김형준	민경임	박은경	배윤석	송좌근	어수락	유혜정	이보용	이윤희	이지은	자비나	정순탁	조민주	최동준	태석기	황세연
구복심	김동훈	김세희	김재섭	김형진	민상연	박은경	배은영	송혜정	엄희경	윤금섭	이상경	이은경	이지현	늑세상	정승은	조민지	최동훈	표정옥	황윤정
구수연	김미르다	김소원	김재학	김혜경	민은지	박은영	배정범	송화진	여강욱	윤민지	이상이	이은미	이지혜	장대현	정승택	조민철	최명렬	하민영	황인봉
구순진	김달영	김소진	김정목	김해미	민주현	배효상	신경민	여민영	이민영	이복연	이상현	이은자	이지혜	장미현	정승현	조상은	최문진	하연주	황정아
구준범	김명규	김솔아	김정미	김혜연	민 희	박일향	백선미	신경수	여민혁	윤상도	이상형	이은정	이 진	장민욱	정승현	조상현	최문희	하정희	황정희
구효정	김명숙	김수린	김정미	김혜영	박경림	박지혜	백선옥	신나리	여정석	윤상호	이상환	이은주	이진호	장 송	정여진	조상현	최민선	하현지	황지나
국종돈	김명희	김수아	김정민	김혜정	박경민	박재경	백송진	신동환	여취경	윤소영	이상훈	이은하	이재원	장순희	정연규	조선희	최민아	한강민	황태규
권기현	김우종	김수정	김정숙	김혜정	박 관	박재숙	백용해	신명수	연정은	윤수임	이상희	이인화	이재형	장연화	정연직	조성민	최민정	한국실명 매방재단	황해성
권도윤	김문식	김수정	김정연	김혜정	박대희	백유진	백은정	신미정	염은정	윤여진	이세룡	이일수	이태영	장유민	정연호	조승호	최병균	최보은	한도연
권동현	김문정	김수진	김정연	김혜정	박동우	박재효	백윤정	신석재	오미경	윤영순	이선아	이지경	이하영	장윤정	정영애	조아름	최보은	한도연	
권미정	김미경	김숙향	김정연	김혜진	박동진	박재희	백지현	신성준	오미정	윤용대	이선영	이재경	이해원	장을재	정영옥	조용민	최보은	한영희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동문 (입학년도 :)	☐ 불교계	☐ 교직원	☐ 기업/단체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			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	)원씩 / 총(			)회		
기부금 용도	☐ 의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 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410-82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5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2. 01~2016. 11. 30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4 1 0 8 2 0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4 Winter | VOL. 1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이곳에 풀칠하세요.

www.dumc.or.kr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 동국대학교의료원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전화예약 및 문의 1577. 7000
응급의료센터 031. 961. 7777
진료의뢰·회송센터 031. 961. 8585/8888
건강증진센터 031. 961. 7700
고객지원센터 031. 961. 7033
장례식장 031. 961. 9400

진료시간

평 일 09:00 ~ 12:00
13:00 ~ 17:30
토요일 09:00 ~ 12:3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전화예약 및 문의 054. 748. 9300
응급의료센터 054. 770. 8119
진료의뢰회송센터 054. 770. 8275
건강증진센터 054. 770. 1400~1
장례식장 054. 770. 8333

진료시간

평 일 08:30 ~ 12:30
13:30 ~ 17:30
토요일 08:30 ~ 12:30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전화예약 및 문의 031. 710. 3700
접수·수납 031. 710. 3714~5
입원·병동 031. 710. 3753~6
응급실 031. 710. 3741
건강증진센터 031. 710. 3712/3781

진료시간

평 일 09:00 ~ 12:30
13:30 ~ 17:00
야간 17:30 ~ 20:00
토요일 09:00 ~ 12:30
13:30 ~ 17:00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